

---

#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sup>1)</sup>

김달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

## I. 서론

1989년 사회주의 붕괴, 2001년 9·11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재정위기는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 세계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때, 에콰도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원주민운동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에콰도르는 1978년에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즉, 1978년 헌법에 따라

---

1) 본고는 저자가 발표한 아래의 연구논문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김달관(2010),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2호, 김달관(2011), 「민주화 이후의 에콰도르 민주주의: 1979-2010」,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2권 1호, 김달관(2011),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 김달관(2012),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미출간).

그동안 선거권이 없었던 원주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진보적인 가톨릭교회의 활동은 원주민의 의식을 깨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2년 에콰도르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 구조조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에콰도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원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후 1992년 에콰도르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1999년에는 에콰도르 경제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 2000년에 달러화가 도입되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운동은 크게 보았을 때, 에콰도르의 민주화와 진보적 가톨릭교회의 활동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성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원주민운동 자체의 고유한 운동에너지에 의해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을 다룰 때, 에콰도르의 민주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내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은 1990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사회운동이 되면서 500년 동안 누적된 모순과 적대를 극복하려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의 주축이 된다. 이에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등의 대항헤게모니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대항헤게모니운동은 2008년 신헌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8년 신헌법의 핵심개념이자 목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가 등장했다. 따라서 본고는 제2장에서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을 ①1979년 에콰도르 민주화 ②1979년 에콰도르 민주화 요인 ③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출현 ④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008년 신헌법에 등장하게 된 수막 카우사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에콰도르 원주민운동

### 1. 1979년 에콰도르 민주화

앞서 언급했듯이,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민주화를 이해하여야 하고 에콰도르의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에콰도르에 대한 전반적 상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콰도르는 1920년대 국제 코코아시장 붕괴 및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 1948년까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이 증가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1931~1948년 기간 중에 21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모두 중도에 퇴진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1948년에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을 마감하고 안정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 농산품의 수출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바나나였는데, 10년이 채 못 돼 에콰도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바나나 수출이 하락했고, 이에 외국계 기업도 에콰도르를 떠났다.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10여 년간 안정되었던 물가가 상승했다. 이에 국민의 시위가 증가했다. 이것은 전통적 경제구조의 침식을 반영하는 1차 생산품 수출 모델의 위기였다.

그러나 1972년부터 에콰도르는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서 1970년대 경제호황을 누렸다. 1972년 이후 석유 생산의 빠른 확대로 에콰도르는 석유 수출국이 되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72~1981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은 8%이었다. 석유 가격 상승과 석유 수출에서 나오는 공공 수익 증대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 세금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발전 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사회투자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에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의해 군사정부는 경제계획을 실천할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기구도 창설했다. 1976~198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성장률은 공공부문 고용에서 나타났는데, 10% 이상을 기록했다.

바나나 붐 시대까지 과두세력이 에콰도르 사회에서 지배적 세력이었다면 석유가 등장하는 1970년대 초부터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헤게모니를 획득했다. 즉 국가의 주요한 재정수입은 농산물 수출 관세가 아니라 석유 수출에 의한 수입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지역발전은 민간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투자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1972년 군부는, 과두세력을 대표하여 5선에 성공한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을 퇴진시켰다. 혁명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로드리게스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1976년 민선이양을 위한 ‘사법적 재건 계획’에 따라 과도적인 삼두정권(Triunvirato)이 수립되었다. 삼두정권은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표명했다. 이후 1978년 국민투표로 민간인인 하이메 롤도스가 선거에 승리했고, 1979년 대통령에 취임한 하이메 롤도스는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민주화 이후의 첫 번째 대통령인 하이메 롤도스는 당시에 변화를 대표했다.

다른 한편, 충유권자의 90%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자는 안건이 45%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이에 1978년 신헌법이 제정되었고, 신헌법에 따라 1979년 8월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하이메 롤도스가 62%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삼두정권은 보통선거로 당선된 민간인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 이때부터 에콰도르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상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질서가 1979년부터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1979년 에콰도르 민주화 요인

이처럼 에콰도르에서 1979년 민주화가 시작된 요인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첫째, 1970년대 에콰도르 삼두정권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추구했다. 베네수엘라의 폰토피호(Punto Fijo) 체제의 기능적 유효성으로 인해 당시 에콰도르 군사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헌정 질서 회복을 지지했다. 1970년대 에콰도르 군사정부는 석유수익에 기반한 발전과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협력을 중시하고 외부적으로 폐쇄적인 양당제에 기초하는 베네수엘라의 폰토피호 체제 모델을 추구했다. 당시 에콰도르 군사정부는 석유수익에 따라 기업인, 중산층, 군부 등 일련의 지지세력이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에 1978년 헌법을 통해 원주민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했다. 둘째,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윤리적 신뢰가 하락했는데, 그것은 야당이 자주 동원하는 정치적 폭로주의에 국민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셋째, 군사정부는 과두세력보다는 새로운 젊은 기업인 집단과 기술관료에게 헤게모니를 부여했다. 과두세력의 위상 회복을 방지하는 방안으로는 2개의 헌법안, 국민투표를 통한 승인, 정당법 제정, 총선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세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민주주의와 기독교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양당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넷째, 1976년부터 군사정부의 사회적 탄압으로 노동조합과 학생운동 등에 의한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부터 군사정부가 갖고 있던 영향력이 감소했다. 특히 1977년 아스트라 지역의 노동자를 학살하면서 군부의 영향력은 감소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첫째, 1970년대 군사정부는 수입대체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 모델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부문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에콰도르 경제에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한 석유자원의 개발은 군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에콰도르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을 과두세력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민족주의적 석유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에콰도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했다. 이에 석유와 관련된 사업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모든 가스 생산과 석유 정제에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셋째, 군사정부는 과두세력보다는 새로 등장한 기업인의 이해에 부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는 경제의 국가부문을 공고화했고, 새로운 기업인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강화했으며, 또한 중산층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1979년 에콰도르의 민주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과 인권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원주민의 선거권 획득은 원주민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고 이것은 원주민운동의 관점에서 계급정치에서 정체성정치로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 3.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출현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에콰도르의 민주화에 영향을 받았고, 원주민운동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최초의 전국적인 원주민 단체는 에콰도르 공산당 지지에 의해 형성된 ‘에콰도르 원주민동맹’(FEI)이었다. 당시에 아시엔다 위기는 진보정치 활동가와 원주민을 연결시켰다. 게다가 원주민과 외부와의 연계 요인으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주민 지도부가 출현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토지투쟁을 위한 원주민 단체 출현에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토지투쟁이 원주민 단체를 연계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투쟁 외에도 지방 수준에서 원주민 차별에 대한 투쟁과 원주민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투쟁 또한 원주민 단체의 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주민운동의 주축인 ‘에콰도르 원주민연합’(CONAIE)은 1986년 11월 ‘제1회 에콰도르 원주민 국민회의’에서 36개의 원주민 단체가 통합되면서 창설되었다. 창설 목적은 원주민 권리회복과 토지회복이었고, CONAIE는 내륙지역

과 아마존지역 원주민 단체에 기원을 두고 있다. CONAIE에 가입한 대표적인 원주민 단체는 에콰루나리(ECUARUNARI)와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연맹’(CONFENIAE)이 있고, 이들 단체의 공통점은 해방신학에 기초한 가톨릭교회의 지지로 창설되었다는 것이다. ECUARUNARI는 1972년 내륙지역에서 창설되었고 대부분의 에콰도르 원주민을 포함하며, CONFENIAE는 1980년에 창설된 아마존지역의 원주민 단체이다. 아마존과 내륙지역에서 원주민운동의 차이점은 내륙지역은 토지·농업과 관련된 요구라면, 아마존지역은 그들의 영토를 잘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의 자결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단체는 토지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이중 언어 가능자, 원주민 지식인, 다른 사회단체 지도자 등이 출현하면서 원주민운동의 지도부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유력한 원주민과 작은 규모의 활동가들은 원주민 지도자의 의식적인 노력을 촉발시켰고, 이러한 노력은 원주민운동으로 수렴되는 ‘작은’ 과정들이었다. 이러한 수렴과정이 없었다면 진보적인 원주민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운동의 조직과정은 다양한 단체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고유한 지방 역사의 수렴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원주민운동의 조직과정은 이중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지역에 기초한 단체의 창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연맹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과정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과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2월에 개최된 CONAIE 제5회 총회에서 지방 원주민의 위기 심화로 인해 에콰도르의 첫 번째 원주민 봉기가 결정되었다. 본격적인 원주민 봉기는 6월 4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원주민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촉발시켰다. 1990년 6월 4일 첫 번째 원주민 봉기는 16개 항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농업에 대한 요구와 다국민국가 선언과 같은 다른 측면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

다.<sup>2)</sup> 이 봉기는 6월 6일부터 정부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단기적 관점에서 1990년 원주민 봉기는 미시적 수준(지방 수준)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서, 거시적 수준(전국 수준)에서는 탈식민(decolonial)으로서 국가에 대한 ‘저항’을 개념으로 하여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다.

#### 4. 에콰도르 원주민운동의 성장

에콰도르에서 1990년 여름에 발생한 첫 번째 원주민 봉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많은 원주민이 봉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봉기 당일까지 얼마의 원주민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주민운동의 시기를 구분할 때, 1990년 6월 봉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를 원주민운동의 성장 시기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990년 봉기 이전은 원주민운동 출현 시기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6월 봉기 이후에 원주민운동이 조직·동원 능력 측면에서 매우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민운동의 성장 시기는 1986년 CONAIE가 창설되던 때부터가 아니라, 1990년 6월 봉기 이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원주민운동에서 1990년, 1992~1993년, 1999~2000년에 가장 많은 원주민이

2) 원주민운동의 제안은 16개 항목이었고, 그것은 사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였다. 16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①에콰도르를 ‘다국민국가’로 선언할 것 ②원주민에게 토지를 허용하고 그 토지를 합법화할 것 ③음용수 문제를 해결할 것 ④농업진흥청과 관련된 부채를 말소해줄 것 ⑤필수품 가격을 동결할 것 ⑥원주민공동체 안에 건설되고 있는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완공해줄 것 ⑦농지와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토지 지불금을 면제해줄 것 ⑧여름언어학교를 원주민 지역에서 옮겨줄 것 ⑨에콰도르 원주민연합(CONAIE) 일원에게 수공업 제품과 물품의 자유로운 수입과 수출을 허용해줄 것 ⑩에콰도르 원주민 연맹 측에서 지정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통제, 보호, 발전에 힘써줄 것 ⑪원주민이 사용하는 약용작물을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줄 것 ⑫부문위원회(Consejos Seccionales)에 병행적인 기구의 창설 조항을 폐지시켜줄 것 ⑬원주민을 위해 재정기금을 즉시 지원해줄 것 ⑭이중 언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 ⑮어린이 권리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 ⑯원주민 자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정책을 취해줄 것 등이다.



참여하였다. 특히 원주민운동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시기인 1992~1993년 동안은 급격한 구조조정 시기와 일치한다. 이후 원주민운동의 다양한 활동은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원주민 참여의 결정적 시기는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공적 영역의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사회운동협력체'(CMS)가 창설되던 1995년이였다. 원주민운동과 관련하여 1995년에 중요했던 것은 '농민사회보험' 민영화 반대와 농업개혁의 공식적인 종결에 대한 반대였다. 이 2개의 문제는 원주민의 상당한 저항과 논쟁을 유발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에 원주민운동에 영향을 끼친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다. 한편으로 1995년부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모든 경제지표는 재앙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위기는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sup>3)</sup> 여기에 하나의 요인을 첨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주민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였다. 토지투쟁은 1990년 원주민 봉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1994년 봉기에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원주민운동에서 토지 문제 중요성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 문제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조점의 변화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후 원주민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농민적' 성격의 운동에서 '중족적' 성격의 운동으로 원주민운동이 변모한 것이다. 원주민운동에서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에콰도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원주민운동은 중요한 대항해계모니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1997년, 2000년, 2005년 3명의 현직 대통령이 해임되었다. 1997~2005년 시기는 에콰도

3) 1995년 부통령인 알베르토 다익은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했고, 코스타리카로 망명을 떠났다. 1996년 대통령으로 압달라 부카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도적 변화와 정치 불안정 시기가 시작되었다. 2명의 대통령은 임기 이전에 탄핵되었고, 원주민운동은 이 2개의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

르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고, 이때의 가장 중요한 대항헤게모니운동으로서 원주민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3명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1997년 압달라 부카람의 퇴진

부카람 정권 이전인 두란(1992~1996년 재임) 대통령 동안에 모든 공공기관은 부패 스캔들로 오염되어 있었다. 지도부를 혁신하지 못한 전통적인 정당들의 위기와 1980~90년대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에콰도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대표격인 부카람(1996~1997년 재임)은 대중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인 담론으로 1996년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부카람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경제가 침체한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1981년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하이메 롤도스 전 대통령의 처남인 부카람은 하이메 롤도스를 추종하는 정당인 ‘에콰도르 롤도스당’의 지도자였다. 이때 부카람은 선거공약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은 부족했지만 빈곤층 타파와 부자를 비판하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부카람은 ‘단번에’(Un Solo Toque)라는 구호로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롤도스당과 부카람은 그동안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부카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1996년 7월 결선투표에서 54%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부카람 정권에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장관도 있었지만, 에너지, 노동, 산업, 무역, 주택, 관세 등의 고위관료들은 부카람과 가까운 가신 세력이 불법적인 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를 보였다. 게다가 부카람 대통령의 취임식 및 일상생활에서 파격적인 행동방식과 부패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기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 6개월 후, 부카람에게 투표했던 국민들은 부카람 정부가 생활에 기본적인 수도, 전기, 가스, 전화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운동, 정당, 시민사회, 종교 등 실제로 모든 국민은 부카람 정부를 불신했다.

이러한 부카람 퇴진에 원주민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공노조, 사회운동협력체, 의회 등이 협력했다. 부카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한 기업부문도 다양한 이유로 부카람 정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부카람 퇴진에 참여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운동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카람 대통령의 친족주의와 부패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을 촉발시켰다. 부카람은 비록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지만,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부카람 대통령에 반대하는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대항헤게모니운동은 부카람을 강제로 해임시켰다. 이로써 부카람은 에콰도르 역사에서 대항헤게모니운동에 의해 강제로 퇴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 2) 2000년 하밀 마우아드의 퇴진

마우아드(1998~2000년 재임)은 1998년 7월 결선투표에서 51% 득표로 승리해 대통령이 되었다. 마우아드 대통령은 제프리 삭스와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역임한 도밍고 카바요 등의 조언과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1998년 IMF가 제안한 정책을 수용했다. 이에 빈곤층을 위한 가스, 전기, 디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중지하면서, 각종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달러화에 대한 에콰도르 수크레화(貨)는 평가절하되었다. 또한 환율 자유화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됨으로써 보다 심화된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에콰도르에서 신자유주의의 체계적 도입과 경제의 탈규제는 금융권을 상당히 확대시킨 한편, 투기자본을 위한 제도도 생겨나게 되었다. 국내 경제와 금융

권의 발전이 미약하고, 1997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수출농업의 황폐화, 석유 가격의 급락, 외부충격(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등으로 에콰도르 경제가 악화되면서 핫머니가 급속하게 에콰도르를 빠져나갔다.

이처럼 1999년부터 사회불안은 위기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3월에 발생했다. 정부의 은행예금 동결과 연료 가격 상승에 반대하여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이 상당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9년 7월에도 반복되었다. 그러나 7월 시민봉기에서는 원주민운동이 처음으로 키토를 점거했다. 키토의 신도시와 구도시 중간에 위치한 공원에 원주민과 시민들이 집결했고 일주일 동안 의회와 정부청사를 포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6일 마우아드와 원주민 지도자는 일 년 동안 연료 가격 인하와 가격 동결을 실시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9월에 이르러 원주민운동과 대화는 깨졌고, 이에 원주민과 도시민의 대중시위가 증가했다. 1999년 12월에 정부는 지도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1999년 몇 달 동안 기존 정치인도 마우아드의 퇴진을 요구했다. 원주민운동과 도시민의 입장은 보다 적극적이 되었으나, 정부의 약체성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0년 1월 11일 원주민운동은 국민의회를 창설하고, 22개 주에서 800여 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대항헤게모니운동 단체도 참여했다. 국민의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임시 대표단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회는 마우아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항의로서 시민의 불복종 운동을 지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주민운동 단체인 CONAIE는 전국적 수준의 시민봉기를 주도했는데, 다른 지방 원주민 단체는 에콰도르의 중요한 '판아메리카'(Pan-Americana) 도로를 차단하면서 키토로 가는 길을 점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19일 정부군이 대항헤게모니운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결국 1월 21일 마우아드 대통령은 해임되었고, CONAIE 회장, 전 대법원장,

군부대표로 구성되는 ‘구국위원회’를 만들었으나, 며칠 후에 부통령인 구스타보 노보아에게 권력을 이양했다. 2000년 1월 21일 시민봉기는 정부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한 ‘혁명’이었지만 CONAIE는 원주민운동의 승리로 인식했다.

### 3) 2005년 루시오 구티에레스의 퇴진

구티에레스(2003~2005년 재임)는 2002년 11월 결선투표에서 55%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구티에레스는 짧은 정치경력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2000년 11월 시민봉기에 참여했고, 이후 잠깐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조금 후에 사면되었다. 이렇게 구티에레스는 정치경력의 기본을 쌓았고 개인적 경력을 활용하면서 원주민운동의 지지에 의해 마침내 2003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구티에레스는 대통령 임기 4개월 만에 지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대통령으로서 언급한 말을 자주 취소하면서 신뢰에 손상을 입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4월 11일 키토 의회는 구티에레스 정권을 비판하는 가두시위를 제안했다. 그날 저녁의 회의 가두시위 제안이 실패로 인식되었을 때, 자발적인 대항헤게모니운동이 출현했다. 2005년 4월 14일부터 키토에서 매일 밤마다 대항헤게모니운동은 구티에레스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때의 시위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주도하였고, 원주민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4월 15일 구티에레스는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시민권을 제한했다.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항헤게모니운동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4월 15일 키토 시위에서 구호는 ‘모든 정치인은 퇴진하라’였다. 이때 시위자들의 요구는 구티에레스 해임을 포함하여, 제한의 회 소집과 헌법이었다. 다음 날에도 저녁시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18일에는 과야킬 시민도 시위를 시작했고, 몇몇 대중매체도 “구티에레스 퇴진”이라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의 구호를 그대로 방영했다. 19일 저녁 경찰진압으로 2명의 사

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봉기는 격앙되었다. 이에 구티에레스는 헬리콥터를 타고 피신했다. 2005년 4월 20일 의회는 구티에레스를 대통령직에서 해임했다. 이로써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정치불안의 한 시기가 종결되었다. 구티에레스는 최근 10년 이내에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해임된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부카람 탄핵뿐만 아니라, 마우아드를 퇴진시킨 군부 참여도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헤게모니운동에서 시작되었고, 구티에레스 퇴진도 대항헤게모니운동에서 유래했다.

### III. 원주민운동과 수막 카우사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주민운동은 1990년을 기점으로 발전했고,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은 2000년대 초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헤게모니운동은 1997~2005년 동안에 선거로 당선된 3명의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강제로 해임시켰다. 그러나 라파엘 코레아는 2006년에 원주민운동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2008년 신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세계관의 반영인 수막 카우사이가 신헌법의 핵심개념이자 목적으로 등장했다. 2008년 신헌법에서 수막 카우사이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500년 동안 배제되고 침묵을 강요당한 원주민의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8년 헌법은 크게 보았을 때, 1990년부터 전개된 원주민운동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막 카우사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에콰도르의 2008년 신헌법에 등장한 수막 카우사이는 키추아(Kichwa) 어로,

수막(sumak)은 충만, 위대함, 존엄 등을 의미하고, 카우사이(kawsay)는 역동적인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를 축자적으로 옮기면 ‘좋은 삶’(Buen Vivir)이다. 그러나 수막 카우사이와 ‘좋은 삶’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어쨌든 수막 카우사이는 신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헌법 전문에서는 “다양성,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의 목표로서 위상도 포함하고 있다. 수막 카우사이는 도덕적·윤리적 원리를 넘어서는 권리로서, 권리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에서 34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권리의 총체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①포용과 공정 ②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 헌법 제340조에서 415조까지 나타난다. 또한 발전의 대안으로서 수막 카우사이는 헌법 제275조에서 339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헌법조항은 총 444조에서 모두 161항에 이른다.

수막 카우사이는 세계 주변부 국가의 주변부 사회인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에서 유래하였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분석된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수막 카우사이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은폐되었던 원주민 세계관에서 유래하였고, 열등하고 야만적이며 추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타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신헌법에서는 이처럼 주변화되고 잊어졌던 이들의 언어와 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수막 카우사이는 공동체적 체계로서 공생의 집단적 구성이다. 그러나 수막 카우사이는 다른 존재방식으로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공동체 사이에 조화로운 조건을 구성하는 공간으로서 공생이다. 신헌법의 수막 카우사이는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복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보로서 발전 이념에 반대하며, 권력의 식민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 세계의 역사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다른 보편적 인류의 철학적 원칙에도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막 카우사이는 사상의 보편성 신화, 단 하나의 과학, 단 하나의 삶의 방식, 지식의 유일한 진리, 동질적 문화, 단 하나의 세계경제가 아니라, 복수의 가치, 복수의 모델, 복수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즉 수막 카우사이는 단일 보편성(uni-versalidad)에서 공생, 공감, 공유, 공공성, 공동체에 기초한 다(多)보편성(pluri-versalidad) 및 이(異)보편성(di-versalidad)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수막 카우사이는 복수적(Plural)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콰도르의 수막 카우사이는 원주민 세계관에 기초하여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운동의 출현은 500년 동안 누적된 ‘권력의 식민성’인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부당하게 배제되고 은폐되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원주민은 유럽의 정복과 식민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에콰도르에서 불평등과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민주화로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1982년 신자유주의 도입, 1992년 신자유주의 가속화, 1999년 에콰도르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 2000년 달러화 도입 등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폭력성이 증가하면서 원주민은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원주민운동 단체는 1986년에 처음으로 전국조직으로 등장했고, 1996년에는 파차쿠티(Pachacutik)이라는 원주민을 위한 정당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원주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와중인 1997~2005년 8년 동안에 원주민운동은



3명의 현직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적인 코레아 대통령은 원주민운동의 지지로 2006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이에 원주민의 가치관이 반영된 2008년 신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0~2008년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은 에콰도르의 다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참고문헌

- 김달관 (2011a), “민주화 이후의 에콰도르 민주주의: 1979-2010”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2권 1호, pp. 63-91.
- 김달관 (2011b),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 국민국가에서 다국민국가로”, 이베로아메리카, 제 13권 2호, pp. 1-31.
- 김달관 (2010),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21권 2호, pp. 25-55.
- Acosta, Alberto y Esperanza Martínez(2009), *Plurinacionalidad: Democracia en la Diversidad*, Quito: Ediciones ABYA-YALA.
- Acosta, Alberto et al.(2008), *Entre el Quiebre y la Realidad: Constitución 2008*,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Quito: ABYA YALA.
- Almeida, Ileana et al.(1992), *Indios*, Quito: ABYA YALA.
- ANC (La Asamblea Nacional Constituyente)(2009), “La Asamblea Constituyente: Contexto, Funcionamiento y Estrategia de Actores”, [www.institut-gouvernance.org](http://www.institut-gouvernance.org)
- Andrade, Pablo(2009), *Democracia y Cambio Político en el Ecuador*, Ecuador: Corporación Editorial Nacional.
- Asamblea Constituyente 2008, Constitución del Ecuador.
- Asamblea Constituyente 1998, Constitución del Ecuador.
- Ayala Mora, Enrique(1988), *Nueva Historia del Ecuador, Vol. 13, Ensayos Generales III: Nación, Estado y Sistema Político*, Quito: Editorial Grijalbo Ecuatoriana.
- Barrera, Augusto et al.(2004), *Entre la Utopía y el Desencanto. Pachakutik en el Gobierno de Gutiérrez*, Quito: Planeta.
- Barrera, Augusto(2001), *Acción Colectiva y Crisis Política: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en la Década de los Noventa*, Ecuador: ABYA YALA.
- Barrera G., Augusto(2001), “Nada Sólo para los Indios. A Propósito del Último Levantamiento Indígena”, *Revista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0, Abril, pp. 39-47.
- Burno, Felipe(2000), “Reflexiones a Propósito del 21 de Enero. Cuando Todos Deciden Saltar al Vací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9 Abril, pp. 4-14.
- César, Julio y Ramiro Avila(2008), “Los Derechos en el Proyecto de Constitución”, en Muñoz, Francisco et al.(2008), *Análisis: Nueva Constitución*, Quit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pp. 68-85.

- Chiriboga, Manuel(2001), “El Levantamiento Indígena Ecuatoriana de 2001: Una Interpretación”,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0, Abril, pp. 28-33.
- Conaghan, Catherine(2008), “Ecuador: Correa’s Plebiscitary Presidency”, *Journal of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Vol. 19, No. 2, pp. 46-60.
- Crespo, Ortiz(2008), “Participación Ciudadana: la Constitución de 1998 y el Nuevo Proyecto Constituciona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32, Quito, pp. 13-17.
- Dávalos, Pablo(2005), *Pueblos Indígenas, Estado y Democracia*, Buenos Aires: CLACSO.
- Dávalos, Pablo(2004), “Movimiento Indígena, Democracia, Estado y Plurinacionalidad en Ecuador”, *Revist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0, No.1, Venezuela, pp. 175-202.
- Dávalos, Pablo(2001), *Digamos lo que Somos, antes que Nos Den Diciendo lo que no Somos: Una Minga de Ideas*, Quito: ABYA YALA.
- De la Torre, Carlos(2002), “Movimientos Étnicos y Cultura Política en Ecuador”,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5, Diciembre, pp. 62-74.
- \_\_\_\_\_ (2002), *Afroquiteños: Ciudadanía y Racismo*,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 \_\_\_\_\_ (1996), *El Racismo en Ecuador: Experiencia de los Indios de Clase Media*,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 Echeverría, Julio(2006), *El Desafío Constitucional: Crisis Institucional y Proceso Político en el Ecuador*, Quito: Ediciones ABYA-YALA y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 García P, Francisco(2007), “Un Nuevo Modelo Rural en Ecuador? Cambios y Permanencias en los Espacios Rurales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Revista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9, Septiembre, pp. 77-93.
- García, Francisco(2006), “El Sector Agrario del Ecuador: Incertidumbres ante la Globalización”,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4, Enero, pp. 71-88.
- Grijalva, Agustín(2009), “Principales Innovaciones en la Constitución de Ecuador del 2008”, [www.institut-gouvernance.org](http://www.institut-gouvernance.org)
- Grijalva, Agustín(2008), “La Corte Constitucional y el Fortalecimiento de las Garantías”, en Muñoz, Francisco et al.(2008), *Análisis: Nueva Constitución*, Quit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pp. 118-135.
- GrupoSantillana(2006), *Historia de Ecuador*, Quito: Imprenta Mariscal.
- Guerrero, Andres(2000), *Etnicidades*, Ecuador: FLACSO.
- Guererro, Andres(1991), *La Semántica de la Dominación: El Concertaje de Indios*, Quito: Ediciones Líbri Mundi.

- Guerrero, Fernando y Pablo Ospina Peralta(2003), *El Poder de la Comunidad. Ajuste Estructural y Movimiento Indígena en los Andes Ecuatorianos*, Buenos Aires: CLACSO.
- Gutiérrez S. Francisco(2004), “Democracia, Economía y Conflicto en el Ecuador”, *Análisis Político*,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No. 50, Enero-Abril, pp. 73-85.
- Hidalgo, Juan(2006), “Cosmovisión y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os Indígenas en el Ecuador”, Amalia Inés Geraiges de Lemos et al. *América Latina: Cidade, Campo e Turismo*, San Pablo: CLACSO, pp. 263-279.
- Hoetmer, Raphael(2008), “Resistiendo al Capitalismo Neoliberal en Abya Yala: El Caso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Rodrigo Montoy Rojas, *Voces de la Tierra*,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pp. 105-147.
- Ibarra, Hernán(2008), *Visión Histórico Política de la Constitución del 2008*,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 Jaramillo, Muñoz(2009), “La conyuntura de Cambio en Ecuador”,  
www.institut-gouvernance.org
- José, Juan y Miño Cepada(2008), “Visión Histórica de las Constituciones de 1998 y 2008”,  
www.institut-gouvernance.org
- Lacuisse, Marie-Esther(2007), “Los Movimientos Políticos Locales en el Escenario Electora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7, Enero, pp. 37-45.
- León, Mauricio(2003), “Etnicidad y Exclusión en Ecuador: Una Mirada a partir del Censo de Población de 2001”,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7, Septiembre, pp. 116-132.
- Larrea, Ana Maria(2008), “La Plurinacionalidad: Iguales y Diversos en Busca del Sumak Kawsay”,  
www.institut-gouvernance.org
- Magdalena, León(2008), “El ‘Buen Vivir’: Objetivo y Cambio para Otro Mundo”,  
www.institut-gouvernance.org
- Moreno Y., Segundo(1992), *El Levantamiento Indígena del Inti Rami de 1990*, Quito: ABYA YALA.
- Muñoz, Pabel(2006), “Ecuador: Reforma del Estado y Crisis Política, 1992-2005”, *Historia Actual Online*, No. 11, pp. 101-110.
- North, Liisa(2006), “Militares y Estado en Ecuador: Construcción Militar y Desmantelamiento Civi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6, Septiembre, pp. 85-95.
- Ospina, Pablo(2010), “Estado Plurinacional y Autogobierno Territorial: Demandas Indígenas en Ecuador”, en González, Miguel et al., *La Autonomía a Debate: Autogobierno Indígena y Estado Plurinacional en América Latina*, Ecuador: FLACSO, pp. 201-218
- Ospina, Pablo(2006), *En las Fisuras del Poder: Movimiento Indígena, Cambio Social y Gobiernos Locales*, Quito: Instituto de Estudios Ecuatorianos.

- Pablo, Juan(2008), “Movimientos Sociales y Procesos Constituyentes”,  
[www.institut-gouvernance.org](http://www.institut-gouvernance.org)
- Pachano, Simón(2005), “Ecuador: Cuando la Inestabilidad Se Vuelve Estable”,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3, Septiembre, pp. 37-44.
- Paz, Juan(2008), “El Proceso Constituyente desde una Perspectiva Histórica”, en Muñoz, Francisco et al.(2008), *Análisis: Nueva Constitución*, Quito: Instituto Latinoamerican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pp. 26-45.
- Pazmiño, Catalina(2005), “La Frágil Legitimidad del Príncipe Democrátic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3, Septiembre, pp. 27-36.
- Porras Velasco, Angelica X.(2005), *Tiempos de Indios: La Construcción de la Identidad Política Colectiva del Movimiento Indio Ecuatoriano*, Quito: ABYA YALA.
- Rosero, Fernando(1990), *Levantamiento Indígena: Tierra y Precios*, Quito: Centro de Estudios y Difusión Social(CEDIS).
- Saad, Pedro(2005), *25 Años de Democracia en Ecuador*, Quito: Editorial El Conejo.
- Sanchez, Francisco(2008), *Democracia no Lograda o Democracia Mallograda?: Un Análisis del Sistema Político del Ecuador: 1979-2002*, Quito: FLACSO.
- Sanchez L., Francisco(2006), “Uso y Abuso de la Reforma en Ecuador: Reflexiones Generales con Énfasis en lo Electora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5, Mayo, pp. 9-19.
- Sanchez-Parga, José(2007),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La Larga Ruta de la Comunidad al Partido*,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 Santiago, Ortiz(2008), “El Contexto Político de la Asamblea Constituyente en Ecuador”,  
[www.institut-gouvernance.org](http://www.institut-gouvernance.org)
- Simbaña, Floresmillo(2008), “La Plurinacionalidad en la Nueva Constitución”,  
[www.institut-gouvernance.org](http://www.institut-gouvernance.org)
- Verdesoto, Luis(2007), “El Nacimiento de Una Nueva Clase Política en el Ecuador”,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28,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Quito, pp. 13-21.
- Walsh, Catherine(2009), *Interculturalidad, Estado, sociedad: Luchas (De)coloniales de Nuestra Época*, Quito: ABYA-YALA y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 Walsh, Catherine(2008), “Interculturalidad, Pluriculturalidad y Decolonialidad: Las Insurgencias Política-Epistémico de Refundar el Estado”, *Tabla Rosa*, No. 9, Julio-Diciembre, Bogotá, pp. 131-152.
- Walsh, Catherine(2002), “Interculturalidad, Reformas Constitucionales y Pluralismo Jurídico”, *Publicación Mensual del Científico de Culturas Indígenas*, No. 36. Quito:  
<http://icci.nativeweb.org/boletin/36/walsh.html>